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 스위스 꽃밭 산책해 봄 활짝 피어난 도시 속 오아시스

스위스 도시에 봄이 왔나 봄
황량한 코로나 겨울을 이기고 활짝 피었습니다
스위스 도심에서 만나는 봄꽃 로드
튤립, 장미, 수선화, 아이리스,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

2021년에는 해외여행이 예전처럼 다시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에는 활짝 피어난 도시의 오아시스를 찾아본다.

봄이다. 호수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따스한 기운이 꽃망울을 터트린다. 봄이면 깨어나는 것은 단지 자연 뿐만이 아니다. 스위스의 마을과 도시에 있는 공원과 정원도 지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황량한 기운을 떨쳐 내고 생기 넘치는 도심 풍경을 만들어 낸다. 봄이면 튤립, 장미, 수선화가 도시의 곳곳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이런 정겨운 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1. 취리히(Zurich) 호숫가 꽃길

취리히의 호숫가 산책로에 있는 정원은 다채로운 꽃밭으로 가꾸어져 있다. ‘느리게 걷기’가 취리히의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잡은 1800 년대에 만들어진 호반 산책로로, 오랜 시간 동안 취리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원이다. 특히 호반 산책로 중앙에 위치한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의 전망 테라스에서 화려한 빛깔의 꽃길 산책을 시작해 엔게(Engel)까지 호반을 따라 걸어 보아도 좋다.

2. 몽트뢰(Montreux)와 브베이(Vevey)에 흠뻑 젖은 5 월의 눈

4 월과 5 월 사이, 새하얀 나르시스 수선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면 몽트뢰와 브베이 근교의 언덕은 그윽한 향기의 새하얀 풍경으로 변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진기한 현상을 “5 월의 눈”이라 부른다. 레자방(Les Avants)에서 종루(Sonloup)까지 푸니쿨러를 타보아도 좋고, 나르시스 길을 따라 하이킹을 즐겨보아도 좋다.

3. 베른(Bern)의 다채로운 꽃 풍경

베른의 장미 정원(Rosengarten)에는 220 종의 장미, 200 종의 아이리스, 28 종의 철쭉이 피어난다. 그 화려한 색채가 구시가지 풍경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낸다.

4. 빈터투어(Winterthur)의 장미

취리히에서 멀지 않은 빈터투어에는 2,900 주나 되는 장미목이 심어져 있다. 장미 정원에서 바라보는 구시가지의 풍경을 벗 삼아 여유로운 봄 산책을 나서기 좋다.

5. 모르쥬(Morges) 튤립 페스티벌

매년 봄마다 열리는 모르쥬 튤립 축제는 레만(Léman)호숫가에서 손꼽히는 봄맞이 축제다. 올해는 4 월 1 일부터 5 월 9 일까지 열리는데, 모르쥬 마을 호반에 있는 랑데팡덩스 공원(Parc de l'Indépendance)이 다채로운 튤립으로 화사해진다. 이 기간 동안 약 300 종의 다양한 튤립이 주변 마을에서 찾아온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6. 뉴샤텔(Neuchâtel)의 봄 향연

봄이면 뉴샤텔 마을의 뉴샤텔 호숫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들이 만개한다. 호숫가를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이름 모를 꽃들의 향내에 흠뻑 취하게 된다.

7. 쿠어(Chur)의 꽃밭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쿠어의 봄은 색다르다. 굵어진 골목과 역사적인 건물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로 도시는 마법에 걸린 듯하고, 주변 들판은 다채로운 빛깔의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쿠어에서 빙하특급(Glacier Express)나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을 타고 봄꽃 기차여행을 떠나보아도 좋다.

8. 루가노(Lugano)의 꽃 공원

꽃을 좋아한다면 루가노만큼 풍성한 꽃을 피워내는 공원과 정원을 갖춘 도시는 없다. 산 그라토 공원(Parco San Grato)을 거닐어 보아도 좋고, 벨베데레(Belvedere) 정원에서 산책을 해도 좋다. 아열대 식물이 무성하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